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 년 12 월 2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전역에 걸쳐 **600** 회가 넘는 대테러 공동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발표

*뉴욕주 대테러실, 주 경찰, FBI 대테러 공동대응팀 구성원들과 지역의 법 집행기관들이
2016 년에 기업체 및 조직들에서 훈련을 수행했음*

*“Operation Safeguard”는 기업체, 조직 및 일반 공중에 의한 의심스러운 활동의 조기
신고를 장려함으로써 보안을 강화시킴*

*2016 년 시정연설에서 이루어진 주 지사의 지시가 21 세기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를
보장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대테러실이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보고 프로그램과 대테러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 전역에 걸쳐 기업체들과 조직들에서 올해 **600** 회 이상의 “Operation Safeguard” 대테러 훈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와 샌 버나디노에서 2015 년에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응해서, Cuomo 주지사는 2016 년 시정연설에서 다양한 기업체들이 발표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훈련 활동을 탐지해서, 그것을 즉각 법 집행기관에 신고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뉴욕 전역에 걸쳐 훈련 횟수를 증가시키도록 주 정부 대테러실에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21 세기 테러 위협에 직면해서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 공중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법 집행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 능동적 역할을 할 것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훈련들은 기업체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수상한 행동을 신고하도록 보장하는데 극히 중요합니다.”

2016 년 내내, FBI 의 대테러 공동대응팀, 뉴욕주 경찰, 카운티 보안관, 그리고 경찰 부서의 구성원들이 주 차원의 이러한 전례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대테러실 담당요원들과 협력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전체적으로 거의 **100** 개의 법 집행기관들과 **300** 명의 담당요원들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종전에는 매년 뉴욕의 **16** 개 대테러 지구 중 단지 몇 군데에서만 진행되었던 훈련이 이제는 매년 주 전역의 모든 지구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의 위협적 환경과 정보에 기초해서, 비밀리에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안보 및 법 집행 담당요원들이 버펄로에서 롱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600 개 이상의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각각의 기업체에서, 담당요원들이 해당 기업이 범죄 활동을 탐지해서 신고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급조된 폭발물에서 사용된 다양한 화학물질과 구성품에 대한 수색 등과 같은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각각의 방문 후에는, 국토안보부, 연방, 주 및 지방 협력기관들이 성공적인 조치와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각각의 장소에서 접하게 된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법 집행 팀들은 스타디움, 경기장, 쇼펍몰, 트럭 렌탈 회사, 칼리지 및 대학교, 교통 인프라 등과 같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공공 장소를 포함해서, 주 전역의 가장 외진 시골부터 가장 큰 도심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장소와 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팀 구성원들은 올해 여름의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등과 같은 행사들에서도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의심스러운 활동이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신고되었으며, 그러한 활동이 신고되지 못한 경우에는, 팀 구성원들에 의해서 제공된 후속 교육이 잘 받아들여졌고, 향후에는 그러한 활동이 법 집행기관에 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있었던 2016년 9월의 폭발사고에서 사용되었던 압력밥솥 폭탄 및 파이프 폭탄과 같은 급조된 폭발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나 구성품을 판매하는 철물점, 총포점, 대형 소매점 및 업체 등의 기업체들도 방문했습니다. 추가로, 이 팀들은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향후의 공격을 모의하거나, 재료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 기지로서 객실을 사용할 수도 있는 장소에 기초해서, 호텔과 숙박 업체도 점검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 **John P. Melville**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표되지 않은 실시간 훈련은 기업체들이 수상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에 반응해서, 그것을 법 집행기관에 즉각 신고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기업체의 직원들과 일반 공중이 우리의 활동으로부터 목격된 의심스러운 활동을 법 집행기관에 신고했던 많은 긍정적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계심에 찬사를 보내며, 모든 시민들이 경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주위 사정에 유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 경찰청장 **George P. Beach I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알아채고, 법 집행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업체와 일반 공중을 교육하는 것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데 있어 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우리가 일반 공중에게 보다 잘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와 일반 공중이 경계를 유지하면서 잠재적인 위협을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연방수사국 올버니 지부에서 활동하는 특수요원 **Andrew W. Vale**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 집행기관과 우리 지역사회가 테러 관련 활동과 연관될 수 있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일반 공중이 제공한 정보가 범죄자를 식별하고, 범죄 활동의 차단으로 귀결되는 수많은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일반 공중을 교육하고, 행동 절차를 점검할수록, 우리 지역사회는 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반 공중이 경계심을 유지하고, 일체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법 집행기관에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뉴욕주 경찰서장협회 상임이사 Margaret Ry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장들과 법 집행 경찰관들은 매일매일 뉴욕주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협력합니다. **Operation Safeguard** 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및 기업체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이러한 보호를 향상시키고, 누구나 **See Something, Say Something** 활동의 일원이라는 점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뉴욕주 보안관협회 상임이사 Peter R. Keho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훈련들은 연방, 주 및 지방의 법 집행기관들이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도록 선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911** 사건 이래 함께 협력해온 방법에 대한 훌륭한 모범사례입니다. 우리 나라와 해외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주지사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을 두고 있는 뉴욕에 우리가 있는 것은 행운입니다.”

국내외에 걸친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음모는 우리 주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야 할 모든 뉴욕 주민들의 공유된 책임을 강화시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목격한 경계심을 갖춘 한 명의 시민이나 한 기업체의 직원이 신고한 한 통의 전화가 진행 중인 테러 음모에 대해서 법 집행기관에 경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1-866-SAFE-NYS(1-866-723-3697)**로 전화하거나, [SeeSend](#)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진이나 문자를 보냄으로써 뉴욕주 테러정보망(**Terrorism Tips Line**)에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확인하는 방법과 아울러, 우리 주의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캠페인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Safeguard New York](#) 을 방문하세요.

대테러실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이 운영하는 [대테러실](#)은 테러 활동 및 위협을 방지하고, 이에 대비하며,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방, 주, 지방, 부족 및 민간 부문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대테러실은 법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테러와의 전쟁에서 뉴욕주 경찰 및 그 밖의 법 집행기관 및 공공 안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과 그 산하의 네 개 기관, 즉, 대테러실(Counter Terrorism), 비상관리실(Emergency Management), 화재방지통제실(Fire Prevention and Control), 상호운용 및 비상통신실(Interoperable and Emergency Communications)은 테러 및 기타 인재와 자연재해, 위협, 화재 및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방지하고, 이에 대비하며, 이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응해서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리더십, 조율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 DHSES](#)를 팔로우하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